

##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관한 연구: 연령집단별 비교 및 취학 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안재진<sup>1)</sup>

###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실태를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이용과 비교해봄으로써,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보편화 정도를 살펴보고,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과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유치원·보육시설 이용과 갖는 관계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연령집단(영아집단/유아집단)을 구분하여 별도의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미취학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사교육 이용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미취학 영유아 중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참여가 상당히 보편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아동 1인당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은 취학아동에 비해 적었다.

시간제 사교육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반일제기관 이용여부, 모의 취업여부, 거주지역, 월 가구소득, 모의 학력, 자녀수, 자녀출생순위, 아동의 만 연령 등이었으며, 가구특성 면에서 보면 모가 학력수준이 높고,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고 도시지역에 사는 가구에서 시간제 사교육 이용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출생순위가 뒤로 갈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시간제 사교육 이용확률은 낮았으며, 아동의 만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제 사교육 이용확률이 높았다. 반일제기관 이용여부의 영향력은 영아집단과 유아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났는데 영아집단의 경우 반일제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확률이 높은 반면, 유아의 경우에는 반일제 기관 이용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이미 유아의 반일제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편, 미취학 영유아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프로그램 관련 요인 외에 반일제기관 이용 여부, 월소득, 자녀수와 자녀의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미취학 영유아, 시간제 사교육, 시간제 사교육비**

\*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0년도 기본과제 『아동 가구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육구: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심층분석』 제9장의 내용을 정리·보완한 것임.

1)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조교수

##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의 문제는 일찍부터 저출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을 만큼 심각하다. 통계청의 2008년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교육비가 소득에 비하여 부담된다는 가구가 전체의 79.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가구의 교육비 부담요인으로 많은 부모들이 학원, 과외 등 「보충교육비(73.0%)」라고 응답해, 사실상 사교육비가 교육비 부담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교육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75%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교육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아동기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가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사교육업체의 의도가 맞물려(이정원, 2009), 이제는 사교육의 대상이 미취학 영유아까지 내려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가 실시한 「2009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도 전체 미취학 영유아의 32.8%가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아들 중에서는 절반 이상(52.4%)이 이용하고 있어,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수이기는 하나 미취학 영유아 중 일부(2.3%)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대신 반일제 이상 학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미술학원, 놀이학원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취학 영유아의 사교육 이용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공공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는 대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미취학 영유아 부모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였고, 2009년 7월부터는 가구소득 4인 기준 258만원까지 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보육료·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에게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기본보조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반일제 이상 학원과 기타 기관들의 비용 상승과 추가비용의 증가 때문이다(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즉, 부모들이 보육료·유아교육비로 지원받은 금액만큼을 추가비용이나 사교육비로 다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공교육 형태로 이

루어져 교육비 부담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보편화됨으로써,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유아기에 시작된 사교육 이용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사교육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현상은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어린 연령부터 사교육이 시작되어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거치는 동안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많은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추가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우리 사회의 출산율 하락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취학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 중에서도 반일제 이상의 학원(유아대상 영어학원, 미술학원, 놀이학원 등)과 시간제 사교육(특기적성 위주로 이루어지는 시간제 기관 및 개별교육)은 이용의 주된 목적이나 이용 양상의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유아대상 사교육이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대체재 기능을 하고 있다면, 시간제 사교육은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교육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대상 반일제 학원은 조기 영어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와 정규교육·보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대한 불신 등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부모들은 이들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과 보육시설이라는 국가 수준의 정규 보육·교육기관과 기능상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이정원·이윤진, 2008), 이에 따라 유치원, 보육시설과 일종의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시간제 사교육과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과의 관계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이상 아동의 사교육 이용 양상과 유사한(일정 시간 이상의 정규교육을 보완하는 형태인) 시간제 사교육을 중심으로, 미취학 영유아의 사교육 이용을 초·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이용현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시간제 사교육의 저연령화 현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시간제 사교육의 이용 및 비용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유치원·보육시설 이용과 갖는 관계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단, 연구자료의 특성상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반일제 이상 학원 내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특별활동은 시간제 사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미취학 영유아라도 영아집단과 유아집단은 발달특성상 시간제 사교육 이용 정도와 영향요인이 다를 것이라고 여겨져 통합모형 외에 각각의 집단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은 취학 아동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둘째,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여부 및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여부 및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은 연령집단(영아/유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선행연구 검토

미취학 영유아의 사교육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미취학 영유아의 사교육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사교육 이용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특성이나,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밝히고자 시도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정원과 이윤진(2008)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들의 개별교육 및 학원 이용 경험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와 이들을 위한 정책지원방안을 밝히고 있다.

황혜신(2003)과 안지영(2003), 이기숙 외(2002)의 연구에서는 사교육 이용과 더불어 사교육 이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들 연구 모두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조기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에게 너무 일찍, 너무 많은 조기교육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황혜신(2003)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자녀의 조기교육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신과 남을 바라보는 잣대가 다른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 자신의 자녀에게 조기교육을 시키면서도 이를 조기교육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지영(2003)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들은 조기교육의 열풍 분위기 개선의 필요함을 지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어, 어머니들이 인식과 실제 행동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기숙 외(2002)의 연구에서는 조기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시키는 조기·특기교육의 과목수도 많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유아 조기·특기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시기가 너무 빠르고, 종류와 비용도 너무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기교육에 대한 인식이 실제 이러한 조기교육의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비교적 최근에 실시된 우

남희 외(2009)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는 인지 중심의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인성교육에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인지와 행동 간의 괴리를 확인시켜준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남희 외(2009)의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들과 달리,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영유아들에게 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 영아기 이상 자녀를 둔 어머니들 대부분이 자녀에게 두 가지 이상의 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유아 사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전 연구들에서는 부모들이 유아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가운데 사교육을 시키고 있었다면, 우남희 외(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들이 영유아에 대한 사교육 자체가 적절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교육 이용과 어머니의 양육관련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김보람·엄정애(2007)의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대부분이 지적 성취나 학교 성적을 강요하기보다는 인성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자녀의 발달에 대해 부모나 외부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환경주의 신념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지적성취나 학교성적을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의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 가짓수와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지고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지영(200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환경주의 신념을 가진 경우 자녀가 받는 조기교육의 가짓수는 더 많으며, 환경주의 신념과 조기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신념을 가진 경우, 자녀의 한글 및 영어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성취압력이 높은 경우, 자녀가 받는 조기교육의 가짓수는 더 많으며, 어머니는 예능·특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미(2010)는 가정환경 변인과 더불어 학업성취에 관한 어머니의 교육신념이 유아 사교육 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학업성취에 관한 4가지 신념 중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이나 교사의 가르침보다는 유아의 노력과 유아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이용하는 사교육 가짓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교육신념, 성취압력 등 양육관련 특성이 미취학 영유아의 조기 사교육 이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연구는 조기 사교육 경험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조기 사교육 경험이 아동의 문제행동(백혜정·김현신·우남희, 2005)과 아동발달(우남희·백혜정·김현신, 2005), 초등학교 4학년 때의 학업성취(김기현, 2008) 등 아동

의 발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유아가 받고 있는 조기 사교육의 가짓수는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백혜정·김현신·우남희, 2005), 유치원 원장들은 조기 사교육이 유아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학습요령과 대인관계 측면 등)과 부정적인 영향(과도한 스트레스, 주의산만 및 끈기 부족, 이기적 성향, 자율성 부족 등)을 모두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우남희·백혜정·김현신, 2005). 반면, 김기현(2008)의 연구에서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학업성취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사교육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미취학 영유아의 사교육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유아의 성별과 연령, 가구 내 유아 수, 가구주 학력, 부모의 학력, 모의 취업여부, 부모의 직업, 가구월소득, 거주지 및 거주형태 등이 가구의 미취학 영유아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이기숙 외, 2002; 안지영, 2003; 강이주, 2007; 김보림·엄정애, 2007; 이경선·김주후, 2010).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영향력을 밝힌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성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비교를 통해 관련성을 밝혀냈기 때문에, 다른 변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가구주의 학력, 부모의 직업 및 모의 취업여부는 월소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며, 부와 모의 학력 또한 높은 상관관계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변수와 사교육 이용 간의 상관관계만을 살펴본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취학 영유아의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로는 이정원(2009), 김기현(2008), 김지경(2004)의 연구가 있는데, 이정원(2009)의 연구는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대상이 포괄적이지 못하며, 세 연구 모두 유치원·보육시설의 대체재 역할을 하는 반일제 이상 학원과 시간제 사교육을 구분하지 않고, 사교육 범주에 모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과 사교육 이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일제 이상 학원(유아대상 영어학원, 미술학원, 놀이학원 등)과 구분되는 형태의 시간제 사교육을 분리하여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시간제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지출과 관련하여,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여부를 중심으로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Ⅲ.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가 실시한 「2009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중 가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국 보육실태조사는 전국의 250개 표본조사구에서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미취학 영유아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미취학 영유아는 유아가 1,570명, 영아가 1,736명으로 총 3,242명이다.

주요 통계분석방법으로는 기술분석과 시간제 사교육 이용 여부를 예측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그리고 시간제 사교육비에 지출되는 비용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주요 변수

본 분석의 종속변수는 시간제 사교육 이용 여부와 시간제 사교육 비용으로, 시간제 사교육은 시간제로 이용하는 기관과 개별교육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시간제 기관은 정규 보육·교육기관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용되는 반일제 이상 학원(유아대상 영어학원, 미술학원, 놀이학원 등) 이외에 아동의 특기교육이나 보습을 위해 다니는 학원과 문화센터 등 시간제 이용기관을 포함한 것이며, 개별교육은 개인 또는 그룹지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지도로, 교재교구를 활용한 교육, 예체능 교육, 교과목 과외, 학습지 활용교육 등이 모두 해당된다. 시간제 사교육 비용은 위에서 정의한 시간제 사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모두 합산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크게 아동 관련 특성(아동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과 모의 특성(모의 취업여부, 모의 연령, 모의 학력), 가구 관련 특성(가구소득, 거주지역 규모, 자녀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반일제 기관 이용 여부(유치원, 보육시설, 선교원, 반일제 이상 학원 및 기타 반일제 이상 이용하는 기관 포함)를 포함시켜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과 시간제 사교육 이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반일제 기관에 유치원과 보육시설 외에 선교원, 학원 및 기타 기관들을 모두 포함시킨 이유는 반일제 이상 이용하는 기관들의 경우 그 성격에 관계없이 사실상

유치원 및 보육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부모들이 인식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시간제 사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변수(이용 프로그램 가짓수와 프로그램 이용시간)는 프로그램 비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변수이므로,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을 예측하는 2번째 모형에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주요 변수의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측정
종속변수	시간제 사교육 이용여부	이용=1, 미이용=0
	시간제 사교육 비용	월 이용비용을 천원 단위로 측정
독립변수	반일제 기관 이용여부	이용=1, 미이용=0
	모취업 여부	취업=1, 미취업=0
	거주지역	대도시(1) 중소도시(2) 읍면(3)으로 구분하여 더미화(참조변수=읍면)
	가구소득	만원 단위로 측정된 가구소득 총액을 로그변수로 변환
	모 연령	30세 이하(1), 31~35세(2), 36세 이상(3)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더미화(참조변수=36세 이상)
	모 학력	고졸 이하(1), 대재 이상(2)으로 구분
독립변수	아동성별	남아=0, 여아=1로 측정
	자녀수	가구 내 총 자녀수
	출생순위	조사대상 아동의 출생순위
	아동연령	아동의 만 연령
	이용 프로그램 수	이용 중인 시간제 사교육 프로그램 총 수
	프로그램 이용시간	시간제 사교육 이용 총시간

## IV. 분석결과

### 1. 미취학 영유아와 취학 아동의 사교육 이용 비교

미취학 영유아의 제 특성별, 사교육 유형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현황은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발간한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서」 7장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현황을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교육과학기술부, 2010)에 나타난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이용과 비교하였다.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포함된 사교육비는 학원비, 개

인 및 그룹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의 과외비로, 보육실태조사에서 시간제 사교육에 포함되는 항목과 거의 일치한다. 인터넷 및 통신강의 과외비는 보육실태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았으나, 영유아의 경우 이러한 인터넷 및 통신강의 과외를 거의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비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sup>2)</sup>. 다음 <표 2>는 미취학 영유아 및 취학 아동의 사교육 참여율 및 주당 평균 참여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표 2> 사교육 참여율 및 주당 참여시간

단위: %, 시간

구분	사교육 참여율	주당 평균 참여시간	지역규모별 참여율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
미취학 영유아 전체	32.8	2.0	32.8	35.1	34.6	25.1
영아	15.3	1.2	16.2	17.1	16.3	9.2
유아	52.4	2.2	52.1	56.7	54.3	42.1
취학아동 전체	75.0	7.4	79.6	74.6	76.0	67.3
초등학교	87.4	8.6	88.8	88.2	87.3	84.7
중학교	74.3	8.3	76.9	72.4	77.3	65.4
고등학교	53.8	4.3	67.9	55.2	54.3	30.5
일반고	62.8	5.1	74.2	62.4	62.8	39.9
전문고	26.1	2.0	32.5	29.5	26.5	18.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2009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표 2>를 보면, 미취학 영유아의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취학 아동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당 평균 참여시간은 2.0시간으로 취학 아동 전체의 참여시간인 7.4시간보다 훨씬 적었다.<sup>3)</sup>

전체적으로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참여율은 52.4%로 전체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비슷하여,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참여가 상당히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참여시간은 취학 아동의 3분의 1 미만으로 적은 편이며, 이후 초등학교에 취학하면서 사교육 참여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별로는 취학 아동과 마찬가지로 서울과 광역시, 중소도시는 사교육 참여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2) 보육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의 시간제 사교육 참여율은 85.6%로 나타나 사교육비 조사결과와 유사하다. 근소한 차이는 인터넷 및 통신강의 과외비의 포함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3)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 조사는 유료로 이용한 사교육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미취학 영유아의 사교육 중에는 학습지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비용지불을 면제받을 뿐 본질적으로는 유료 사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교육 이용시간에 포함시켰다.

읍면 지역에서의 참여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교육과 관련된 인프라가 적은 읍면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3> 사교육 참여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sup>4)</sup>

단위: %, 만원

구분	사교육 참여비용	지역규모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
미취학 영유아 전체	8.5	10.3	7.9	8.3	7.9
영아	6.4	7.2	5.7	6.5	5.7
유아	9.2	11.5	8.7	8.9	8.4
취학아동 전체	32.3	41.6	30.2	32.2	34.5
초등학교	28.1	34.3	26.3	29.1	21.3
중학교	35.0	42.4	32.7	35.4	27.1
고등학교	40.4	55.5	36.4	36.6	26.6
일반고	42.8	58.3	38.6	38.7	27.8
전문고	22.9	29.8	20.7	21.5	23.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2009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한편, 위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미취학 영유아의 경우 8만 5천원으로 취학아동의 월평균 비용인 32만 3천원에 비해 비교적 부담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이상 아동의 경우 공교육 체계로 편입되어 학교에 납부하는 비용이 많지 않은 반면, 미취학 영유아는 반일제 이상 기관을 함께 이용하고 있을 경우, 그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취학 영유아 1인당 지출되는 전체 교육비는 취학아동과 비교하여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보육실태조사 결과분석에서도 기관 이용 아동의 1인당 총비용은 13만 2천원, 추가비용은 6만 5천원으로 총 19만 8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유치원과 보육시설 외에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별로 사교육 참여 아동 1인당 지출되는 월 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와 중소도

4) 사교육비 조사결과에는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까지 포함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제시하고 있으나, 미취학 영유아의 경우 사교육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실제 아동 1인당 지출되는 사교육비가 과소추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취학 아동 1인당 평균 사교육비를 참여율로 나누어 사교육 이용아동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을 산출하였다.

시, 읍면지역에서는 비슷한 규모로 아동 1인당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과 타 지역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읍면 지역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지만, 사교육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출하는 1인당 사교육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학 아동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구의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을 살펴보면(표 4, 표 5 참조), 먼저 취학 아동과 미취학 영유아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취학 아동의 90% 이상, 유아의 71.4%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학 아동의 사교육 참여가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꾸준히 상승하는 것과 달리, 미취학 영유아의 경우 소득이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는 오히려 소득 300만원 이상인 집단보다도 사교육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단위: %

구분	소득수준별 참여율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이상
미취학 영유아 전체	19.3	24.4	33.1	37.2	39.8	44.5	35.5	46.4
영아	2.9	9.9	16.7	17.4	22.4	21.1	17.3	24.7
유아	33.8	43.3	51.9	60.4	55.0	64.5	53.1	71.2
취학아동 전체	35.3	55.1	72.9	82.6	86.5	88.9	90.1	91.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2009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이러한 양상은 가구의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데, 취학 아동의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며,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편차가 100만원 미만인 집단과 7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반면, 미취학 영유아에 대한 지출은 가장 소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 2배 가량 차이가 나며, 특히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들에서는 집단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교육을 이용하는 미취학 영유아의 경우, 취학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해 기관 이용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을 아동의 사교육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300만원 미만 가구들의 집단별 사교육비 지출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더라도, 소득계층이 높은 경우,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지출되는 교육비의 총액은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이라도 형편이 허락되는 한 사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소득수준별 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원

구분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이상
미취학 영유아 전체	7.7	6.4	7.1	8.7	9.4	12.2	9.5	15.7
영아	5.7	5.5	5.9	5.7	7.7	7.5	6.8	9.8
유아	7.8	6.6	7.5	9.7	10.0	13.5	10.3	18.1
취학아동 전체	17.3	20.0	24.7	29.8	35.8	41.8	46.6	56.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2009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이상으로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현황을 취학아동의 사교육 이용과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종합해보면, 미취학 영유아 중 유아의 경우, 시간제 사교육 참여율이 52.4%로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이 이미 상당히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교육 참여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미취학 영유아에게서 훨씬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의 대부분이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들이 이미 이들 기관에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교육비에 지출하려는 경향은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에서도 볼 수 있는데, 보육료를 지원받는 계층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 부모들이 지원받은 금액만큼을 다시 사교육에 재투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능한 많은 비용을 아동의 교육에 투자하려는 높은 교육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이미 유아기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및 비용 영향요인

### 가. 주요 변수의 특성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및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았다(표 6 참조).

<표 6> 주요 변수의 특성

변수	구분	비율(수)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율	영아	15.3( 267)			
	유아	52.4( 816)			
반일제 기관 이용비율	영아	32.3( 563)			
	유아	95.3(1,487)			
모취업 여부	취업	34.5(1,113)			
	미취업	65.5(2,114)			
거주지역	대도시	39.9(1,318)			
	중소도시	43.5(1,435)			
	읍면	16.7( 550)			
모 연령	30세 이하	28.2( 915)			
	31~35세	47.4(1,539)			
	36세 이상	24.4( 793)			
모 학력	고졸 이하	46.6(1,514)			
	대재 이상	53.4(1,735)			
아동성별	남아	51.1(1,689)			
	여아	48.9(1,614)			
총 자녀수	1명	30.6(1,010)			
	2명	53.6(1,769)			
	3명	14.3( 472)			
	4명 이상	1.5( 51)			
대상 아동 출생순위	첫째	49.5(1,635)			
	둘째	39.4(1,301)			
	셋째	9.9( 327)			
	넷째 이하	1.1( 39)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사교육비 지출(만원)	8.51	8.36	0	88	1,084
가구소득(만원)	300.63	302.246	0	9,998	3,299
아동 만 연령	2.39	1.74	0	6	3,303
이용 프로그램 수	1.81	1.13	1	9	1,084
프로그램 이용시간(시간)	2.48	4.23	0.17	60.00	1,083

종속변수인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의 경우 15.3%, 유아의 경우 52.4%로 나타났으며,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은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전혀 지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와 월 최대 88만원까지 지출하고 있다는 응답까지 편차가 매우 컸으며, 평균적으로 약 8만 5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일제 기관 이용은 영아의 32.3%, 유아의 95.3%가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유아

의 경우 반일제 기관의 이용이 거의 의무교육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모는 전체의 34.5%로 2009년도 여성 전체 취업률인 47.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39.9%, 중소도시가 43.5%, 읍면이 16.7%이며, 모의 연령은 31세~35세 사이가 47.4%로 가장 많았고, 30세 이하와 36세 이상이 각각 28.2%, 24.4%를 차지했다. 모의 학력은 고졸 이하와 대재 이상으로 구분하였는데, 대재 이상이 53.4%로 고졸 이하(46.6%)보다 많았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1.1%로 여아보다 조금 더 많았다. 가구 내 자녀수는 2명이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많았으며, 1명이 30.6%로 그 뒤를 이었다. 3명은 14.3%였고, 4명 이상이라는 응답은 1.5%로 소수였다.

조사대상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인 경우가 49.5%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둘째가 39.4%, 셋째가 9.9%로 뒤를 이었다. 넷째 이하라는 응답도 소수(1.1%) 있었다. 가구소득은 전혀 없다에서 월 9998만원까지 매우 편차가 컸는데 평균 소득은 300만원 정도였다. 조사대상인 미취학 영유아의 평균 연령은 2.4세이고,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중인 사교육 프로그램 수는 최소 1가지에서 최대 9가지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 1.8개 정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이용시간의 편차도 매우 커서 주당 0.17시간(10분)에서 60시간까지 분포하고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주당 약 2.5시간을 사교육에 할애하고 있었다.

#### 나.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모형1은 미취학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고, 모형2는 영아집단, 모형3은 유아집단에 대해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먼저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모형1의 카이제곱 값은 922.089로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수의 값을 제외한 모든 계수의 값이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또한 모형의 분류 정확도는 74.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모형2와 모형3의 경우도 카이제곱 값이 각각 280.317, 170.213으로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모형의 분류 정확도도 84.4%, 64.4%로 비교적 높았다.

&lt;표 7&gt;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모형1(전체)		모형2(영아)		모형3(유아)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반일제기관 이용	-.332*	.137	-.781***	.187	.449+	.265
모취업	-.494***	.102	-.727***	.193	-.377**	.120
거주지역						
대도시 거주	.435**	.135	.550*	.250	.405*	.162
중소도시 거주	.496***	.133	.662**	.249	.459**	.160
월 가구소득(로그)	1.404***	.200	1.511***	.344	1.303***	.249
모 연령						
30세 이하	-.044	.137	-.201	.230	.026	.179
31세~35세	.091	.111	-.020	.212	.165	.130
모 학력(대재 이상)	.270**	.096	.586***	.167	.150	.120
아동성별	-.049	.088	-.201	.148	.048	.111
자녀수	-.252*	.105	-.350	.226	-.113	.120
아동 출생순위	-.332**	.104	-.770**	.241	-.193	.117
아동 만 연령	.790***	.041	1.263***	.116	.657***	.070
상수	-5.636***	.518	-5.939***	.896	-6.066***	.727
-2Log Likelihood	3143.921		1201.907		1879.622	
X <sup>2</sup>	922.089***		280.317***		170.213***	
유사 R <sup>2</sup>	0.250		0.151		0.108	
분류표에 의한 예측 정확도	74.5%		84.4%		64.4%	
(수)	(3,242)		(1,736)		(1,506)	

주: +p<.10, \*p<.05, \*\* p<.01

이러한 모형의 적합성을 근거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반일제 기관 이용은 사교육 이용과 부적인 관계를 보여, 반일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사교육 이용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일제 기관 이용의 영향력은 영아집단과 유아집단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영아의 경우 반일제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사교육 이용 가능성을 낮추는 반면, 유아의 경우 p=.10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보여 반일제 기관 이용이 사교육 이용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95% 이상이 반일제 기관 이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반일제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일제 기관 이용 여부와 사교육이 큰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머지 변인들의 경우 3개 모형에서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시간제 사교육 이용 가능성이 낮았으며,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경우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이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월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모가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가능성은 높았다. 그러나 집단별로 살펴보면 모학력의 영향은 영아집단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제 사교육 시작 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출생순위가 후순위일수록 시간제 사교육 이용가능성은 감소하였다. 또한 아동의 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간제 사교육 이용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집단과 유아집단 내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했다.

#### 다.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의 편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미취학 영유아 1,06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는 시간제 사교육 이용 결정요인과 큰 차이가 없으나, 모형 2에서는 프로그램 관련 변수인 이용 중인 시간제 사교육 프로그램 가짓수와 이용비용을 함께 투입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표 8>은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 중인 전체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을 보면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형1의 수정된  $R^2$ 값은 0.14, 모형2는 0.558로 프로그램 관련 변수를 투입했을 때 모형의 설명력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이용 수와 이용시간에 증가할수록 지출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형1과 모형2의 F값은 각각 15.421, 96.694로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선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반일제 기관 이용은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반일제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이미 반일제 기관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제 사교육에 지출할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월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시간제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수는 시간제 사교육 이용여부 뿐 아니라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도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어, 자녀수가 많은

경우 시간제 사교육 이용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아동 1인당 지출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하며, 이용 프로그램의 수가 많고, 이용시간이 길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증가하는 것을 할 수 있다.

<표 8>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전체)

구분	모형1			모형2		
	B	표준오차	베타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5.377***	2.994		-11.525***	2.151	
반일제기관 이용	-3.046***	.863	-.145	-1.056+	.622	-.050
모취업	-.522	.545	-.030	-.172	.391	-.010
거주지역						
대도시 거주	1.052	.781	.062	.325	.560	.019
중소도시 거주	.612	.768	.036	.236	.551	.014
월 가구소득(로그)	8.289***	1.129	.234	4.495***	.818	.127
모 연령						
30세 이하	.146	.786	.007	-.694	.565	-.033
31세 ~35세	-.590	.590	-.035	-.422	.424	-.025
모 학력(대재 이상)	.860	.527	.050	.471	.378	.027
아동성별	-.119	.483	-.007	.122	.346	.007
자녀수	-1.309*	.551	-.100	-.806*	.396	-.061
아동 출생순위	-.513	.546	-.038	-.021	.392	-.002
아동 만 연령	2.414***	.246	.415	.539***	.186	.093
이용 프로그램 수				4.751***	.169	.641
프로그램 이용시간				.285***	.042	.144
조정된 R <sup>2</sup>	0.140			0.558		
F	15.421**			96.694***		
수	1,061			1,061		

주: +p<.10,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영아집단과 유아집단에 대해 각각 실시하였다. <표 9>를 보면, 영아집단의 경우 모형 1에서는 반일제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 수나 연령에 따른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모형1의 수정된 R<sup>2</sup>값은 0.052로 동일한 모형을 유아집단에 적용했을 때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아집단의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는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9>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영아)

구분	모형1			모형2		
	B	표준오차	베타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562	4.514		-4.464	3.758	
반일제기관 이용	-2.119*	.847	-.176	-.414	.722	-.034
모취업	1.322	.845	.104	1.891**	.704	.149
거주지역						
대도시 거주	.162	1.188	.015	.918	.990	.083
중소도시 거주	.428	1.185	.039	.728	.984	.066
월 가구소득(로그)	3.415*	1.691	.140	2.438+	1.407	.100
모 연령						
30세 이하	-.142	1.041	-.012	-.645	.871	-.055
31세~35세	.365	.948	.033	-.322	.796	-.029
모 학력(대재 이상)	.707	.768	.058	.202	.639	.017
아동성별	-.135	.674	-.012	-.172	.561	-.015
자녀수	-.605	1.010	-.066	-.240	.840	-.026
아동 출생순위	-1.027	1.081	-.101	-.502	.899	-.049
아동 만 연령	.869	.592	.104	-.699	.513	-.084
이용 프로그램 수				4.544***	.421	.580
프로그램 이용시간				-.100	.065	-.079
조정된 R <sup>2</sup>	0.052			0.347		
F	2.224*			11.095***		
수	266			266		

주: +p<.10, \*p<.05, \*\* p<.01, \*\*\* p<.001

모형2에서는 프로그램 관련변수를 투입한 결과,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반일제 기관 이용과 이용 중인 사교육 프로그램 수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반일제 기관 이용 아동은 대체로 시간제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가짓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이를 통제했을 때 기관 이용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모 취업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 취업은 시간제 사교육 이용 여부에는 부적인 관련성을 갖지만,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취업모인 경우 시간제 사교육 이용가능성은 낮지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이는 맞벌이의 경우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개인대리양육자 등을 이용하여 시간제 사교육 이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직접 자녀를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시간제 사교육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아집단 내에서는 연령에 따른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영아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어린 아동

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일수록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상쇄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형2에 투입된 프로그램 관련 변수 중에서 프로그램 이용 수는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프로그램 이용 시간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이용시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프로그램의 비용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영아의 발달 특성상 단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다음 <표 10>은 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유아의 경우 반일제 기관 이용은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유아의 95% 이상이 기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월 가구소득과 자녀수, 아동의 만 연령이 모형 1, 2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아에 대한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가구소득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아동 1인당 돌아가는 자원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유아 집단 내에서도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학 준비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용 프로그램 수와 이용 시간은 모두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유아의 경우 이용 프로그램 수가 증가할수록, 장시간 프로그램을 이용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유아)

구분	모형1			모형2		
	B	표준오차	베타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3.326***	4.094		-14.226***	2.836	
반일제기관 이용	-1.925	1.714	-.038	-1.342	1.180	-.027
모취업	-.976	.660	-.053	-.715	.454	-.039
거주지역						
대도시 거주	1.406	.955	.076	.384	.658	.021
중소도시 거주	.580	.932	.032	.102	.642	.006
월 가구소득(로그)	9.512***	1.380	.252	4.831***	.963	.128
모 연령						
30세 이하	.498	1.031	.020	-.650	.712	-.026
31세 ~35세	-.800	.708	-.044	-.270	.488	-.015

(표 10 계속)

구분	모형1			모형2		
	B	표준오차	베타	B	표준오차	베타
모 학력(대재 이상)	.911	.652	.050	.467	.450	.026
아동성별	-.107	.603	-.006	.316	.415	.017
자녀수	-1.344*	.657	-.089	-.910*	.452	-.060
아동 출생순위	-.454	.637	-.032	.093	.439	.007
아동 만 연령	3.306***	.390	.293	1.008***	.280	.089
이용 프로그램 수				4.672***	.186	.624
프로그램 이용시간				.423***	.052	.197
조정된 R <sup>2</sup>	0.142			0.593		
F	11.935***			83.802***		
수	794			794		

주: +p<.10, \*p<.05, \*\* p<.01, \*\*\* p<.001

##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영유아가 이용하는 사교육 유형 중 초등학교 이상 아동의 사교육 이용형태와 유사한 시간제 사교육을 중심으로, 미취학 영유아의 사교육 이용을 초·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이용현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양상을 살펴보고,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현황을 보면, 이미 유아의 52.4%가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어,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이 상당히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육·교육기관의 기능을 대체하는 형태의 학원(놀이학교,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을 넘어, 시간제 사교육마저도 저연령화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영유아의 최초 개별교육 이용시기가 평균 23.6개월, (반일제 학원을 포함한) 최초 학원 이용시기가 36.3개월로 나타난 이정원·이윤진(2008)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미취학 영유아 전체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반일제 기관 이용여부와 모취업 여부, 거주지역, 월 가구소득, 모의 학력, 자녀수, 아동 출생순위와 만 연령 등이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먼저 반일제 이용 여부와 시간제 사교육 이용을 보면, 반일제 기관 이용은 시간제 사교육 이용과 부적인 관계를 보여, 반일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시간제 사

교육 이용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일제 기관 이용의 영향력은 영아집단과 유아집단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영아의 경우 반일제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제 사교육 이용 가능성을 낮추는 반면, 유아의 경우  $p=.10$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보여 반일제 기관 이용이 시간제 사교육 이용과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반일제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는 부모가 확고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경우 시간제 사교육 이용도 거부하거나 이용하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일 수 있다. 반면 영아를 둔 부모는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기에 자녀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되는 경우 먼저 시간제 기관이나 개별교육을 통해 아동에 대한 교육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변인들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시간제 사교육 이용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자녀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을 수 있으며,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가 자녀와 기관에 동행하거나 방문교육 시 집에 누군가 있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일 것이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시간제 사교육 이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지역의 특성에 따른 시간제 사교육 이용 양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읍면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취학 영유아가 이용할만한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가 부족할 것으로 여겨진다. 월 가구소득은 시간제 사교육 이용과 정적 관계를 보여,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모의 학력은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모가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가능성은 높았다. 자녀수와 출생순위는 시간제 사교육 이용과 부적의 관계를 보였는데, 자녀수가 많을 경우 시간제 사교육 이용으로 인한 비용이 부담스러워 시간제 사교육 이용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첫째 자녀보다 둘째, 셋째 자녀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가능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영아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첫째 자녀인 경우 둘째 이상 자녀보다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시간제 사교육 이용도 더 어린 연령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만 연령은 세 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 전반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간

제 사교육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동일한 영아집단 또는 유아 집단 내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는 정적으로 유의미했다.

마지막으로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반일제 기관 이용과 월 가구소득, 아동의 만 연령과 기타 프로그램 관련 요인(이용 프로그램 수와 프로그램 이용 시간)이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일제 기관 이용은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소득 중 지출 가능한 교육비 중 이미 반일제 기관 이용에 상당부분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시간제 사교육비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고, 자녀수는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어, 자녀수가 많은 경우 아동 1인당 지출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한된 자원으로 많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 1인당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하며, 이용 프로그램의 수가 많고, 이용시간이 길수록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도 증가하는 것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력은 영아집단과 유아집단에서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영아집단의 경우 동일한 모형을 유아집단에 적용했을 때에 비해 설명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집단의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는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이러한 변수를 찾아내는 것이 후속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시간제 사교육의 저연령화 현상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교육비 부담 증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앞서 선행연구 검토 부분에서 다루었던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조기 사교육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지 못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백혜정·김현신·우남희, 2005; 우남희·백혜정·김현신, 2005; 김기현, 2008), 이러한 사교육의 저연령화 현상은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관련 연구들을 통해 조기 사교육의 영향을 명확히 밝히고자 노력하는 한편,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 남용의 위험성을 알림으로써 부모들의 조기교육에 대한 맹신이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적인 측면 이외에 아동기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대신, 자녀들과 의미 있는 경험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 정책

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기 사교육은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것이므로, 부모들이 원하는 경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특기적성 교육이 저렴한 비용으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주민회관이나 복지관 등, 비영리 기관들을 통해 영유아 대상 특기적성 교육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특별활동들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특별활동은 자칫 정규 교육·보육 과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부모들에게 선택이 '강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관 간의 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특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정책적 접근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영아를 둔 부모는 자녀가 정규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기에 앞서, 시간제 기관이나 개별교육을 먼저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자녀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여 보육·교육기관 이용을 꺼리는 경우라도 아동을 위한 또는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원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정규보육·교육 기관 이외에 영아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나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영유아 플라자나 놀이집단(Play group) 등의 활용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미취학 영유아의 사교육 이용은 가구의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인한 출산율 저하 뿐 아니라, 생애 초기부터 아동들을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킴으로써 아동발달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정부의 양육지원과 더불어, 전 사회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변화 및 자녀양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 강이주(2007). 미취학 영유아의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관련 요인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1-17.
- 김기현(2008). 생애 초기 교육기회와 불평등: 유아교육 경험이 교육지속성에 미치는 효과. 노동패널학술대회 발표자료.
- 김보림·엄정애(2007). 유아 조기특기교육의 실태와 어머니 양육신념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8), 13-24.

- 김지경(2004).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소비자학 연구**, 15(3), 67-86.
-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서」
- 안지영(2003).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실태와 어머니의 양육 신념, 양육 스트레스 및 성취 압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11), 95-111.
- 백혜정·김현신·우남희(2005). 조기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3, 23-43.
- 우남희·김영심·이은정·김현신(2009). 저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한국 어머니들의 인식 및 실태조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297-325.
- 우남희·백혜정·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
- 이경선·김주후(2010). 유아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구특성별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21-38.
-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2002). 가정에서의 유아 조기·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3), 153-171.
- 이정원·이윤진(2008).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정원(2009).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취학전 아동의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59(9), 29-55.
- 한유미(2010). 가정환경 변인과 학업성취에 관한 어머니의 교육신념이 유아의 사교육 실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1), 81-90.
- 황혜신(2003). 조기교육에 대한 실태 및 부모의 인식. **열린교육연구**, 11(2), 69-85.

· 논문접수 2011년 9월 30일 / 수정본 접수 11월 30일 / 게재 승인 12월 15일

· 교신저자: 안재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조교수, 이메일 lemures76@hanmail.net

## Abstract

### **A Study on the Use of Preschooler's Part-time Private Education: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Age Groups and with School Age Children**

Jaejin Ahn

This study explores the use of preschooler's part-time private education compared to other groups such a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also ex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use of and the expenditure on part-time private education of preschool children, employing the data of <2009 national household survey on child rear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use of toddler's part-time private education is quite universalized, although the expenditure per child is less than school aged childre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use of preschooler's part-time private education are the use of childcare and education center, mother's employment, residence area, monthly household income, mother's education, number of children within household, birth order, and child's age. Also, the use of childcare and education center, monthly household income, number of children within household, and child's age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expenditure besides the program factors such as number of programs in use and program hours.

Key words: preschool children, preschooler, part-tim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on private education